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국가부채, 909조엔으로 사상 최고치

□ 일본 재무성은 9월 말 현재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(GDP)의 약 2배 수준인 909조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발표함.

- 국채와 정부 차입금, 정부단기증권 등을 합한 국가부채 총액이 9월말 기준 사상 최고인 908조 8,617억엔(한화 약 1경 2,228억원)으로 집계됨.
- 이는 2009년도 명목 GDP의 약 1.9배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 인구(지난달 기준 약 1억 2,738만명)로 환산하면 1인당 약 713만엔의 개인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같음.

□ 국가부채 중 차입금과 정부단기증권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,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가 경기부양 및 복지예산 증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발행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.

- 국가부채 중 차입금과 정부단기증권이 지난 6월 말에 비해 감소하여 각각 54조 3,903억엔, 113조1,836억엔으로 나타난 반면, 국채는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발행 확대로 8조엔 증가한 741조 2,878억엔을 기록함.
- 최근 국가부채 규모 확대 추세에 대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경기부양 및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세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임.
-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900조엔을 넘어선 이후(904조 772억엔)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향후에도 재무성이 내년 3월까지 약 973조엔(누적기준)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.
- 이와 관련해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(S&P)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일본 신용등급 하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.

(로이터, 11/11)